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2006.5.24~27

주관 제1회 反성폭력 문화제 기획단

주최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Gustav Klimt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yonsei.ac.kr/~ysfem
empower@yonsei.ac.kr

제 1회 反성폭력 문화제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첫째날 5월 24일 (수)

개막제 "묻혀진 기억을 불태워라" / 중도 앞 민주광장 1시

강연 내 목소리가 들리는 풍경

-의식의 성장과 치유의 단계에 관하여 (강사: 권수현) / 6시 30분, 본관 4층 소강당

둘째날 5월 25일 (목)

영화상영 "끔찍하게 정상적인" / 7시, 백주년 기념관

셋째, 넷째날 5월 26(금)~27일(토)

워크숍 그녀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숍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

치유를 위한 춤 테라피

-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숍은 사전 신청자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 문화제 기간 동안 연세이반공동체 "Come Together"와 함께하는 자보전이 중도 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딱지가, 앉았었다.
 그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몸의 기억이
 그 상처가 어느 순간 딱딱한 딱지가 되었고
 나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
 순진하게도 믿어버렸더랬다.

더 이상 나는 힘들지 않다고,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다 치유했고 극복했다고, 이제 잊었다고,
 바보같이, 믿었... 아니
 믿고 싶었다. 그렇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감해졌다고 믿던 나는
 딱지를 철갑처럼 둘러
 연한 살점을 지키려 했을 뿐,
 그 속에 갇혀, 그 유물을 부여잡은 채로
 무너져 가는 그 벽에 기대어 우는
 내가, 아직, 거기 서 있더라.

나를 파묻어 스러져 가고 있더라.
 이 잔인한 공간에서 벗어나자,
 벗어나자벗어나자



Illustration by lazy ponc

열었다
 꼭꼭 묻어두었던 그 날의 기억을,
 몸의 기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나의 마음을
 오롯한 나의 언어로 나의 혀로

손을 내밀어 맞잡은 그녀들에게
 하나 하나,
 우리는 울고 웃고 화내고 공감하고 지지하며
 그렇게 손을 잡고,
 그 곳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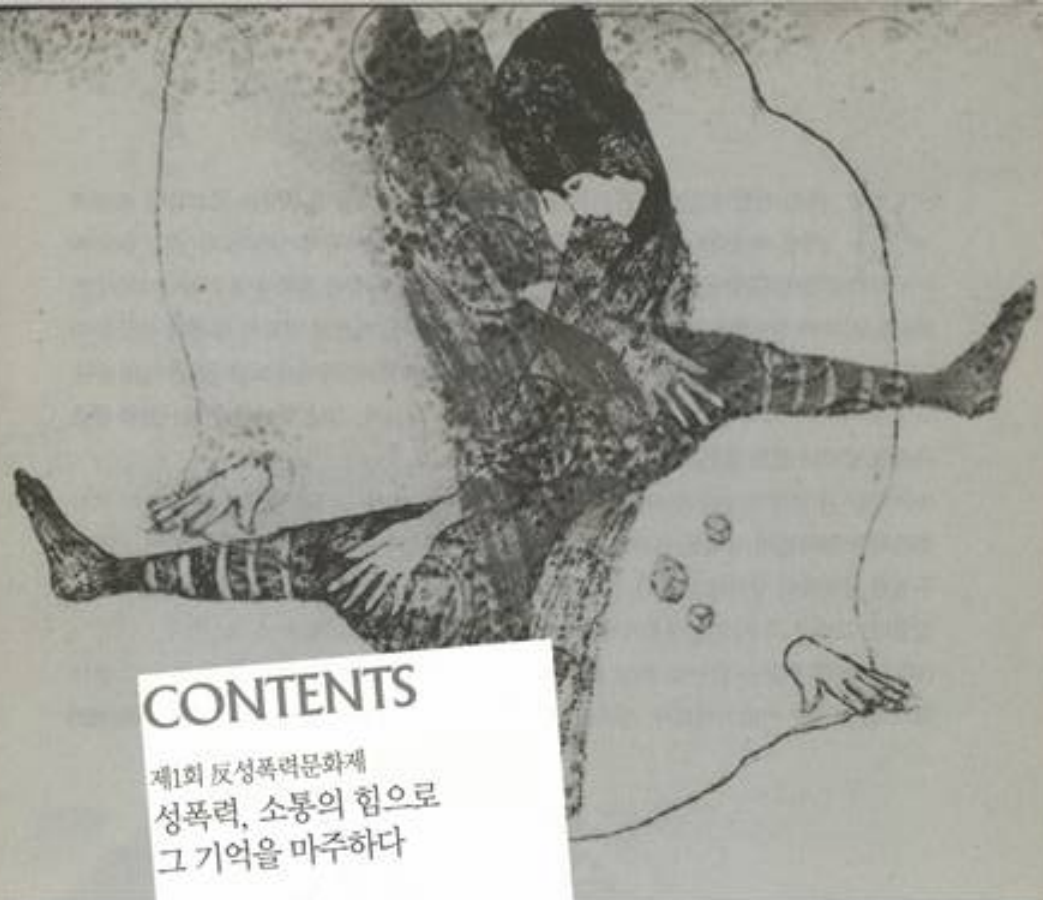
안다,
 그 날의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것
 앞으로도 계속 나의 삶 속에
 녹아있으리라는 것도

그리고 안다, 우리가 함께 하는 한
 더 이상 나를 그 무너져가는 벽에서 울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는 것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안의 힘으로, 맞잡은 손이 전해주는 힘으로
 치유의 길을, 걸어간다.

Source: Korea Art Fair



CONTENTS

제1회 여성폭력문화제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6

〈개막제〉 묻혀왔던 기억을 불태워라 8

〈영화상영〉 끔찍하게 정상적인 9

〈워크숍〉 그녀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숍 10

동행을 위한 치유의 일기 12

지금, 입을 열고자 하는 당신에게 16

연세 이반 공동체 Come Together 18

기억을 함께 마주한 그녀들, 축제를 만든다 -기획단 후기 22

성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정작 피해자의 이야기는 묻혀져 왔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터부시 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뭘 그런 걸 말하려고 하니, 너에게 도움 될 것이 없으니, 그냥 잊어버려. 그러나 아무도 왜 그런 걸 말하면 안 되는지,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이 생존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지 못한다.

생존자가 성폭력의 상처를 혼자서 감싸 안고 가기를 바라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소통이 두절된 성폭력의 상처는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생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니, 조금만 이야기해보자. 성폭력 피해자들 사이에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면, 자신에게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책임을 돌리지도, 상처주지 않아도 성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무턱대고 나에게 전가했던 모든 책임들에서 하나 둘씩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 의해 재단된 것이 아닌, 내가 말하는 성폭력 경험을 통해 잘려진 기억 속에서의 나를 다시 찾아보자. 가부장제 사회의 찌여진 각본 속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생존자로서의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통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스스로 돌본다는 것은 많은 힘을 가져다주지만, 그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변화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제 그 소통의 힘을 키워, 기억과 마주하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갈 나에게 좀 더 다가가 보자. ●



Illustration by lazy picnic

첫째 날 24일 (수)

개막제 "묻혀왔던 기억을 불태워라!"

종도 앞 민주광장 1시

하나, 묻혀왔던 기억을 불태워라!

정지된 시간으로 남아있던 성폭력의 기억, 그 당시의 나 자신에게 '그것은 니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을 걸어보자,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려 했던 가해자에게, 그리고 세상에 분노의 말을 전해본다. 이제, 말하지 못하고 공공 숨겨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말한다. "세상이 들어라, 나는 말한다."

둘, 연세이반공동체 "Come Together"와 함께 하는 자보전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그것을 구조화하는 가부장제 사회는 우리에게 유/무언으로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 여전히 성폭력에 있어서 성기결합 여부만을 중시하는 고정된 사고방식과, 질문되지 않는 굳건한 이성애중심주의에 반기를 들며,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라기 보다는 '생존자'로서 그 경험을 주체적으로 의미화하고 재구성하려고 한다. ●

강연회

내 목소리가 들리는 풍경

-의식의 성장과 치유의 단계에 관하여

강사: 권수현

6시 30분, 본관 4층 소강당



둘째 날 25일 (목)

영화 끔찍하게 정상적인(Awful Normal)

7시 백주년 기념관



감독: 셀레스타 데이비스 Celesta Davis
미국/ 2004/ 76분/ Beta/ 다큐멘터리

작품소개

1978년 카렌과 셀레스타 자매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모들의 행동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 받지 않았으며 그들은 성추행범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이들과

고도 친분 관계를 맺어 왔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성인이 된 두 자매는 여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성추행범을 신고하지 않은 지역사회 때문에 괴로워하던 두 자매는 범인을 찾아내 그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직시하게 만들기로 결심한다. 범인을 찾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첫 번째 가족 회의에서부터 상당 치료 요법 그리고 자매들간의 자세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성추행이 그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된다. 범인의 실체에 다가간 두 사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상처 받기 쉽고 또 강하기도 한 인간 마음에 대한 진정한 보고서이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탐사인 이 영화 속에서 두 여성은 그들의 악마와 문자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 ●

2005 제 7회 서울여성영화제 / 2004 샌프란시스코 사네스트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2004 산타크루즈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 2004 플로리다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2004 앨라배마영화제 CBC 어워드 / 2004 브레스트 단편영화제

2004 몬트리올국제영화제 / 2004 스톡홀름국제영화제

감독 셀레스타 데이비스 Celesta Davis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자신의 첫 사랑이었던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게 된다. 본인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셀레스타 데이비스는 아렸을 때 본인을 성추행 했던 남자와 대면하기로 마음먹는다.

사회학 전공자이자 작가이기도 한 자신의 능력을 살려 그녀의 첫 영화이자 자전적 다큐멘터리인 <끔찍하게 정상적인>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출처: 여성문화예술기획 <http://www.femart.or.kr/>

셋째 넷째 날 26일(금)~27일(토)

워크샵 그녀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성폭력 피해 생존자 워크샵

우리가 이렇게 건디언인 것
오늘 이렇게 풀이낼 수 있었던 것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나눈 것
이 모두에 감사해요.
저도, 더 이상 잊으려고, 잊어버리려고
미친 듯이 애쓰지 않을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기억하면서 갖게 되는 힘을 봤어요.
말하면서 모아지는 힘을 에너지로 얻었어요.
감사해요.

- 2회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대회 참여자의 글 -
생존자 말하기 대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speakout/index.php>)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흔히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의 전형적인 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 말이지요.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존자'라는 명명은 고정된 피해자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치유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란 성폭력이라는 폭력과 위협, 그와 함께 발생하는 고통, 좌절, 무력감 속에서도 삶을 이끌어온, 즉 생존하고 있는,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러내다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감춰져왔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숨겨야만 하는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죠. 설령 입을 연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남성 중심 사회에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피해로 각색해서 말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비난을 하거나 피해자를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등, 성폭력이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재단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생존자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경험은, 성폭력 피해를 '잊고 싶은 기억'으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녀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경험을 말함으로써 그 때의 기억이 다시금 자신을 짓누르게 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한편으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막상 입을 떼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존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되고 치유의 한 방법이 됩니다. 1박2일의 워크샵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내 속에 내재한 치유의 힘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힘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워크샵은 크게 두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하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외국에서는 19년 전부터 'Speak out day'라는 이름으로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생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긍정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치유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의 경험을 오롯한 나의 언어로 말하며, 재구성하는 시간을 통해 치유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둘, 치유를 위한 춤 테라피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경험, 의식,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담고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기억, 아픔, 상처는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춤 테라피는 몸을 사용해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심리치료를 자기치유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춤 테라피는 성폭력의 기억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몸을 풀어주며, 나의 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존자들의 치유의 여정에 힘을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동행을 위한 치유의 일기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날의 일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니?”

그 이후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반응에 나는 다시 상처를 받았다.

이제는 많이 잊혀진 일이지만 그냥 물어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내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였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극복의 서사’이다.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경험 안에 녹아들어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루가 지났다.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질이 쿡쿡 찌서서
바깥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힘이 들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일주일 이 지났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문제가 있어.’

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 날의 일은 무언
가 문제가 있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니?”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났다.

‘난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
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 달 이 지났다.

수업 과제를 위해서 본 영화에 데이트강간 장면이
나왔다. 주인공 여자가 파티에서 만난 남자와 섹스
를 하다가 성기결합을 하려는 순간, 여자는 콘돔을
가져오라고 했고 남자는 콘돔이 없다고 대답하면
서 성기결합을 했다. 여자는 남자를 밀치고 파티장
으로 뛰어내려온다. 친구들이 용급피임약을 사다
주고 그녀를 위로한다.

나는 정말이지 한참을 울었다.

한 달 반 이 지났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강간 피해
자란 말이야?’ 라는 말이 떠올랐다. 길을 걸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콘크리트 바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

모두 내 몸 속에 기억되어있는 것만 같다. 내가 지
금까지 살던 세상으로부터 내던져진 느낌이었다.

두 달 이 지났다.

애인과 헤어졌다. 결국 그 날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내가 과제를 위해 본 영화를
그도 봤고, 어느 날 그가 말했었다. “그 날 내가 너
에게 한 것도 성폭력이었던 것 같다”고. 그 이후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여섯 달 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애인을 만나고 있었다. 어느 날 불이
꺼진 그 사람의 방에서 그가 내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다. 나는 갑자기 무서웠다. 무서움은 곧 사
라졌지만, 충격은 오래 남았다. 나는 이제 강간에
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데이트 강간에
대한 농담 섞인 말이 나왔다. 그냥 함께 웃을 수 있
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순간 내 표정이 질려가
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일곱 달 이 지났다.

헤어진 애인을 만났다.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내가
나에게 한 일은 강간이었다고, 너는 언제나 성기결
합 섹스를 조르면서 나를 힘들게 했었고, 너는 너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의 고통에 대해 사
과하고, 상담을 받으라고.

그는 내게 고통을 준 건 미안하지만 자신이 나에게
빛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말라고 했다. 상담



같은 건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는 나직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는 거짓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을 던진 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만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의 반응에 나는 다시 상처를 받았다.

열 한 달이 지났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가 있었다. 다섯 명의 말하기 참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녀들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어떤 여성은 3년간의 재판과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성폭력 피해가 서너 건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수사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는 분도 있었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분도 있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한 경험,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경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 가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경험.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일년이 지났다.

나를 강간한 사람을 학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했다. 이제는 많이 잊혀진 일이지만 그냥 물어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진술서를 보낸 뒤, 나는 이 일이 결코 나에게 많이 잊혀진 일 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진술서를 써내려갔고, 메일을 전송한 후에는 온 몸을 떨릴 떨었다. 며칠을 앓았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울해지거나 눈물을 글썽였고, 자다가 깨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불안해했다.

일년과 한 달이 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로 했다. 나는 내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 경험에 집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년과 한 달의 시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처음과 두 번째의 상담에서는 눈물이 많이 났다. 그 일이 마치 엊그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일년 반이 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소의 사임과 성폭력피

해생존자 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일에 잠깐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정말 적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나 '약자'를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아에 시달리는 해외의 어린이들, 빈곤층, 병원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난치병 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그리고 '돕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폭'을 원한다.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아이가 밥을 먹고,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투약과 수술로 인해 몸을 회복하고, 장기 기증이나 수술 등을 통해 장애인인 비장애인의 몸을 갖게 되는 것. 무언가가 변화하고, 어떤 것을 극복하고, '문제'였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극복의 서사'이다. 사회는 자신의 상황이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몸에 각인된 자신의 삶 그 자체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궁리를 하지 않는다. 성폭력피해를 '극복하는 것', 성폭력피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은 이 질문에 답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럴 여유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보려고 한다. 분명,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이 사회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린다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마치 거미줄 같이 구성되는 것 같다. 그래서 치유를 질문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는 지난 주에 8회의 상담을 마쳤다. 1~2주에 한 번 상담을 받는 동안 나는 무척 바빴지만,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어느 날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두렵기만 하고 아무것도 나를 낮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상담을 마치는 날은 무척 날씨가 좋았고, 기분도 좋았다. 내가 상담을 받기 시작한 날, 상담을 하면서 없애버리고 싶은 것과 간직하고 싶은 것을 써놓은 종이를 보았다. 모든 관계가 가해자와의 관계처럼 고통스럽게 끝날 거라는 생각, 불안감, 악몽... 상담을 받는 동안은 잘 몰랐는데, 그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면서 '많이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험은 여전히 내가 나의 삶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짐이다. 그 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짐을 안고 걷는 요령을 갖추게 된 것 뿐.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경험 안에 녹아들어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



수전 브라이슨은 자신의 성폭력피해 경험을 담은 책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 모임에서 있었던 순간을 회고한다. 시종일관 조용히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던 것이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고통이 멈춘 적이 있다면 내게 말해주세요?'



Illustration by J. Lee

지금, 입을 열고자 하는 당신에게

많은

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고통'과 마주한다. 내 몸의 주인이 나일 수 없었던 순간의 기억, 떠올리기조차 싫은데 생생하게 떠오르는 느낌, 말하지 않으면 건넬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혼란스러움, 침묵을 강요하는 유/무언의 압력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향한 왜곡된 사회적 시선은 생존자 스스로조차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내 삶에서 나를 '온전한 자아'로 인식할 수 없었던 그 폭력의 순간을 설명하려면, 나 자신을 수동적이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로 설명해야만 할 것 같다. 때로는 피해자라는 이름에서 멀어져, 자신을 결코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과 내가 같아져야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가부장적 사회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이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여전히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팔짱끼고 들으려 한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치곤 한다.

지금 당신이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입을 열고자 한다면, 당신은 치유의 여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난 순간부터 치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성폭력피해생존자는 치유에 이르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끊임없이 그 경험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원한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고통을 참아야 할 때는 참겠지만, 참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껏 울거나 감정을 분출할 곳을 찾아보자. 고통에서 벗어난 시간이 주어진다 보면 즐거운 계획을 실행하고,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폭 빠져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자. 당신이 가진 성폭력의 기억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경험이다.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무리한 망각과 '극복'을 자신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자신 안에서 꺼내어 놓아야 할 이야기가 없는지, 그 일에 대해 취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지, 듣고 싶은 말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자. 갑자기 더 힘들어지거나,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고 해서 자신을 원망하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고 사랑받아 마땅한 많은 생존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녀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보자. 자신을 사랑하는 생존자 앞에서, 가부장 사회의 오만한 편견이 설 자리를 없애기 위해. ●



연세 이반 공동체 Come Together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컴투게더입니다. 우리는 1995년 첫 대학 성소수자 모임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 소수자로서의 삶을 긍정하고 이를 돕기 위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꾸려왔으며 외부적으로는 책을 번역, 출판하기도 하고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글은 컴투게더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소수자로서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 하에 쓰는 것으로서 결코 성소수자 전체를 대변하는 글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성소수자인? 성소수자인 LGBT,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일컫는 말로서 성정체성이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성정체성 소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억압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비난과 폭력, 억압 그리고 범죄가 있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증오범죄가 문제로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을 뿐 있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폭력과 억압을 이기지 못해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간이 협소하고 인간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들의 억압과 폭력을 피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할 수도 없는 학교 내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대부분 간접적이고 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우간의 험담과 몇몇 교수님들의 강의 중 발언입니다. 가령 그들의 일시적 웃음을 위해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를 비웃고 야유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강의 중에 교수님이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런 모욕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자신에 대한 아웃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성소수자에게는 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농담에 불과한데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며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를



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수라는 권력 하에 이루어지는 차별이며 폭력입니다. 하나의 농담과 하나의 말이 모여 성소수자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 타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폭력은 사실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해자중 대다수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와 직접적인 친분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경험 없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편견과 얕은 지식에 기초해 무관심하게 내뱉는 말들은 그 무지 만큼이나 우리에게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믿고 있던 상대방이 결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성 소수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강박적 반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이 없으면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스스로 가치 판단해서 우리를 부정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아웃사이더로서, 마이너리티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자는 다수자에 비해 항상 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무지와 폭력, 그리고 편견에 언제 든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소수자는 불안정한 삶이 될 것이 보이는데도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수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수자임을 거부하고 이성애자로 가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 스스로를 인정한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후자는 자기 스스로를 끝없이 부정하고 억누르는 수동적이며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정당하고 행복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곁에 서서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수에 대해서 통계가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에 이른다고 하며 다른 많은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1%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살

아가면서 많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삶을 함께 나누어 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100명의 사람을 만났다면 그 중 최소한 그 중 1명은 성소수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 중에도 우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 선택, 후배, 동료, 그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중한 이가 성소수자라고 간단히 그 분을 부정해버리신다면 이 또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와 커밍아웃한 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 것 뿐입니다. 만약 성소수자가 여러분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사실 가장 큰 폭력은 학교 내나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언론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폭력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이미지를 왜곡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으로 규정짓는 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들을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이기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정체체성을 깨달았을 때 이미 성소수자였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이 무성한 자갈길일 뻔지라도 자기기만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삶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의 대상, 치료의 대상, 수동적이고 음울한 삶의 마이너리티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우리는 실제로도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능동적 주체입니다.

우리는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길의 가시덤불은 우리가 치울 것이고 우리 길의 자갈은 우리가 다듬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도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그 길 위에 이런 장애물을 놓아주지 말아주시고.

성소수자가 컴투게더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퀴어로서

의 삶을,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잔인한 말에 상처 받아 쓰라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투게더 내에서 우리는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상처를 쓰다듬고 게이로서, 레즈비언으로서, 트랜스젠더로서, 양성애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길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리라고 결심합니다. 그 길 위에서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가슴 속 깊숙이 우러나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면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고 쓸 수 있는 글은 너무나 적기만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어온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무런 의심 없이 가지고 계시던 사고방식에 의존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낳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하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인정과 이해를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단 후기

기억을 함께 마주한 그녀들, 축제를 만들다

이제 시작이구나

-건국

나를 불편하고 답답하게 했던 것들을 '제대로' 보게 됨으로써 더 답답해지고 불안하고 무서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 깨끗해진 창을 통해서 더 멀리 정확히 보게 되었다. 언제나 내게 힘을 주는 여성주의, 오라차차!

-쿨

입을 틀어막는 가부장제의 억압과 내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던, 언제나처럼 소중한 시간들.

-달리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또 하나의 기회. 아직도 나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이 많고, 나와 만나는 그녀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다.

-들려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모름

성폭력을 이야기한다는 것, 분명 힘든 일일 테지만,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일 테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 여성폭력 문화제 속에서 말해나가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상어

성폭력 생존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속으로 삼키고 또 삼켜버린 나의 경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그 힘든 일을 아주 특별한 용기를 내어 나의 경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어 참 기쁩니다. 여성주의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여성폭력 문화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저는 참 힘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가 힘을 얻어갈 수 있길 ~"

-레이

또다시, 언제나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료집 마감을 앞두고 있다.

그래도 또 하나가 끝났고, 또 한걸음 성장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자.

어쨌든 5월이 끝나가고, 별다른 일이 없는 한 6월은 오겠지, 만세!

-아무도

이제는이겨냈다고착각하던내가사실은상처를감웃처럼들러기대어울고있었다이제서야다시그날들을떠올려다숨막히는시간들아직도생생한기억들을몸에재생하는느낌들을하나하나되짚으며집중하다

새록새록나를만나다 고마워

-아이서

욕이 늘고, 복수를 상상하는 내 머릿속, 그 어느 때보다 진전합니다.

-우주

기획단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거였는데요, 여성주의 OT 때 처음 알았어요.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그 리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문화제에 기획단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하하하) 앞으로는 좋은 행사 같이 만들어야겠으면 좋겠구요,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여성주의 파이팅입니다.

-이젤

여성폭력 문화제가 생존자들의 치유의 여정에서 하나의 힘이 되길 바란다.

생존자들이 서로서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길.

-코알

어떤 일든 현상하는 만큼 의미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항상 '성폭력' 글귀만 보면 괴로워서 피하곤 했는데, 아주 제대로 직면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 굴리기보다는 그저 피하지 않고 맞서 아저. 하는 게 또한 다짐이다. 공감과 치유의 차원이 어디까지인지 또 고민하게 된다. 아무튼 힘을 줄 수 있는 행사 아껴.

-하토

제1회 여성폭력 문화제 기획단

건국 (인문 06)
글 (대기과학 03)
달리 (행정 04)
레이 (간호 04)
모름 (의학 03)
우주 (간호 04)
미컬 (사회 06)
하토 (영문 05)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있다〉 18대 총여학생회

들레 (사회학 00)
상어 (불문 05)
아무도 (사회학 04)
아이서 (사회학 04)
코알 (선행 05)